

장성군, 내년 예산 5708억원... “올해보다 8.4% 증액”

민생 회복 등 군민 체감 사업 중점 ‘군민이 행복한 장성’ 실현 전력 더본코리아 협약 시장 활성화도

장성군이 지난 20일 열린 장성군의회 제36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올해 대비 8.4% 증가한 5708억원을 편성했으며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군민 안전, 사회적약자 지원 등 ‘군민 체감형 사업’에 주안점을 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시정연설에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건립 기본조사업체비 7억2000만원 반영,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착공, 300억원 규모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430억원 규모 농촌협약 체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미국과 330만불 ‘K-푸드’ 수출협약 등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민선8기 군정목표인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완성함과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며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혁신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먼저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과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등 대형사업을 차질 없이 수

행해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군도17호선 확·포장,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 청운지하차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물류 수송의 대동맥을 형성한다.

더본코리아 업무협약을 발판 삼아 특화음식 개발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상시 활용을 이어간다. 소상공인 점포 경영개선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에도 힘쓴다.

청년활동공간인 청년센터를 읍·면·동·읍·면에 건립하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청년취업자 주거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 청년이 성장하는 도시를 만든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와 스마트재난구호시스템 구축,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으로 군민 안전을 확보하고 가족행복센터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한다.

장성군보건의료는 신축 이전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와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노후정수장 정비 등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장성군 전역에 맑은 물을 공급한다.

관광분야에서는 2025년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맞물려 ‘장성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



장성군이 올해 대비 8.4% 증가한 5708억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장성군 제공

크골프장 신규 조성,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 공공 스포츠 여건 확충에도 주력한다.

황룡강에는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물놀이시설, 야간조명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친화적 공간을 꾸민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은 선비문화를 중심으로 세계적 가치를 재창조하고, 장성호에는 제3출렁다리를 설치해 웅장한 볼거리를 갖춘다.

복지분야는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한 100원 행복택시 운영과 효도권,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확충, 삼계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든든하고 촘촘한 양육·돌봄 여건을 갖춘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농업분야는 2026년 완공 예정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대응한다.

농업인월급제, 공익수당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가루쌀 재배단지, 전략작물 생산단지 조성, 국산밀 생산 장려로 쌀 수급 안정 및 소득 증대를 지속적으로 이룬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900여 공직자와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며 “체계적이고 탄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장성군의 경쟁력과 위상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청년 푸드트럭 2차 선발 화순군, 29일까지 방문 접수

화순군은 지난 21일부터 맛과 열정을 가지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2차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은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개조비용 또는 푸드트럭 시설, 장비 구입비 등으로 1인당 16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으로, 푸드트럭 영업 신고와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총 2대를 모집한다.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최상준 군립미술관 주차장, 한천 휴양림 내 오토캠핑장 총 2곳이며 신청자는 이 중 1곳을 선택해 신청한다.

신청은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준비해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오는 29일까지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푸드트럭 공모신청서를 접수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선정할 계획이며 경합 시에는 장소별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는 화순군에서 주·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1)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화순군, 12월부터 3월까지

화순군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서울·경기·수도권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등 전국 6개 특·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단독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긴급자동차, 장애인이나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의 생업 활동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등은 단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삼숙 화순군 환경과장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해당 지역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과 아울러 2025년에도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무료 차량 안심 이동서비스 화순군치매안심센터 12월19일까지 제공

화순군은 26일 치매안심센터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치매 어르신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안심 이동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안심 이동서비스는 작년 9월부터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 택시 및 임차 차량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치매 프로그램과 조기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치매안심센터를 오가는 차량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3월부터 11인승 승합 임차 차량을 운행 중이며 오는 12월 19일까지 매주 화·수·목 교통 취약지역 거주자와 거동불편자에게 안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프로그램 참여 증가 및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주민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치매 안심 이동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여 치매 중증화 예방에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인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치매안심센터(061-379-5316)로 전화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 치매안심센터가 거동이 불편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심 이동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귀가 지원 등 종합서비스

화순군은 지난 25일부터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에서 2025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동아리 및 특별 활동 지원, 석식 및 귀가 차량 지원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순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중 1학년~ 3학년까지 2개 반 4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수련관 1층 방과후아카데미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 중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는 대기자로 별도 관리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061-379-5178·5179)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 화순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국어, 수학, 영어 등 학습지원 △스포츠, 공예, 댄스 등 프로그램 참여 △진로탐험, 주말체험, 캠프, 문화예술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 △심리검사 및 상담 △석식 지원, 귀가 차량 지원까지 무료(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로 이용하게 되는 방과 후 원스

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선화 화순군 가정활력과장은 “돌봄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방과 후 시간에 학습에도 충실하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용 청소년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화순군 방과후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